

철도사고 대응훈련도 '신속하고 정확하게'

- 24일 장항선 군산역에서 열차 탈선 상황 가정... 초기대응·협력체계 점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24일(화)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* 합동훈련을 실시한다.

* 국토교통부(철도안전정책관) 한국철도공사(안전총괄본부장), 군산시, 군산보건소, 군산소방·경찰, 원광대학교, 대한적십자 전북지사, 군산의료원 10개 기관 약 150명이 참여

○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.

○ 「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따라 사고 발생 접수 후 상황 전파, 사상자 구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①초기 대응 및 ②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,

○ 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(ITX-마음)를 활용함으로써, 출입문 수동취급, 탈선차량 복구방법 등 최신의 사고대응체계도 진단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최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”면서,

○ “내실 있는 고강도 훈련을 정례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훈련사진 별도 배포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원 (044-201-4601)
		담당자	주무관	문성배 (044-201-4609)